"bad deal" 美 의회 비준 저지 벌러

〈나쁜 거래〉

쇠고기·자동차 부문 협상에 불만 … 심의과정 격론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발효를 위해 미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의원들이 2일 잇따라 한미 FTA 비준 반대 목소리를 내 의회 심의과정에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 및 자동차 관련 의원 및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FTA 비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 반대론자들이 대부분 FTA 비준의 길목인 재무위 소속이고, 하원의 경우 한미 FTA 비준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랑겔 세출위원장, 샌더 레빈 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등도 그동안 쇠고기·자동차 등 쟁점이슈와 관련해 미 행정부에 강력한 주문을 해왔다는 점에서 협상결과에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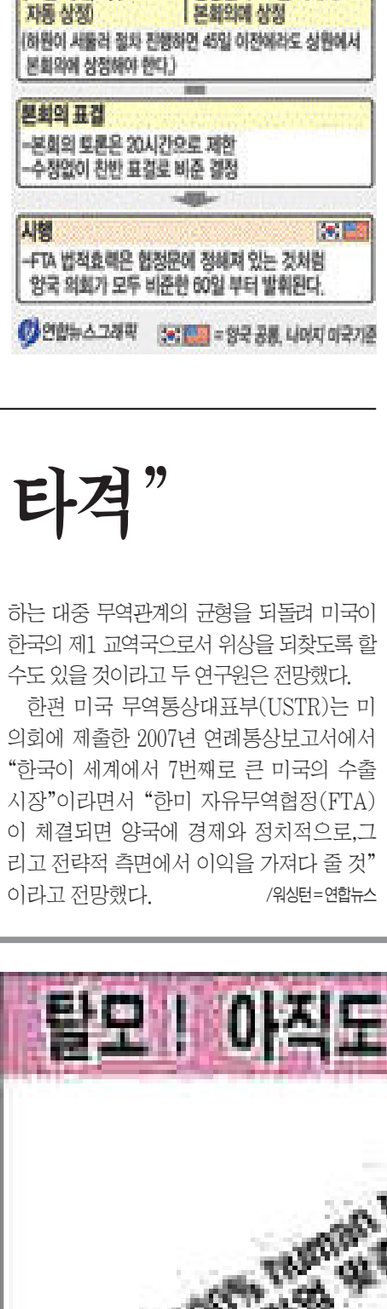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재개를 주장해온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몬태나주)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협상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면서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지 않으면 FTA 합의를 반대할 것이고, 상원(비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고 협상대표들을 비난한 뒤 "한국이 만약 미 의회의 FTA 승인을 원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인 상원 재무위의 데비 스테이브나우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업계에 "나쁜 합의(bad deal)"라며 "미국 정부가 무역촉진권한시한에 쫓겨 타결을 서두름으로써 무역적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줄이며, 자동차 등 제조업계를 해치는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상원 재무위의 척 그래슬리(아이오와주) 의원은 성명을 내고 "향후 3년내 95% 공산품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이번 합의는 교역차원에선 의미가 크지만, 쌀이 제외돼 실망스럽다"면서 "농업제품들을 무역협상에서 제외하면 보호무역주의의 존속을 쉽게 하기때문에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FTA 체결 자축 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이 한미FTA 체결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겸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 회장,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일본은 FTA 후진국"

日 전문가들 "가전제품 등 악영향…전략 수정해야"

일본이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소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한미 FTA 합의를 교훈으로 한국, 미국 등과의 FTA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는 한국이 FTA를 무기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 등의 제품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일본 제품이 불리해진다는 점을 지적, 일본도 FTA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는 이번 한·미 FTA 체결협상 타결로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 전자제품이 순풍을, 일본의 가전 메이커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라타 교수는 한국이 여세를 몰아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일본이 자유 무역협상에서 더욱 뒤처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 국내의 자유무역 반대파를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타결의 배경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타결하고 싶어하는 한국과 TPA(통상일괄교섭권) 기한이 6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자하는 미국이 쌍방의 정치적 결단으로 타결지었다"고 분석했다.

또 이와타 노부토 아오야마학원대학 교수(국제무역론)는 "한미 FTA는 한국이 농산품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장차 추진될 미·일 FTA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의 시장 개방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국내 업계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미국과의 FTA 협상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한미 FTA를 모델로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타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협상(도하라운드)에서는 일본이 농산품 수입국으로서 한국이나 스위스 등과 함께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이 그룹이 해체돼 일본에 농업 자유화를 촉구하는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현지생산을 강화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연합뉴스

日 관방 "한·일 FTA 언제든 교섭 용의"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3일 한·일 양국간의 중단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언제라도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다.

시오자키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간에 타결된 FTA 합의와 관련,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정상레벨을 포함해 협상 재개를 한국측에 요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의를 갖고 조기 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측에 촉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한단계 발전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일본의 미국이나 한국으로의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미 협정의 내용을 잘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간 FTA 협상은 지난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한국의 대일 농산물 시장개방 요구에 일본측의 반대가 심하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공산품 수입관세 철폐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까지 겹쳐 협상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무역액에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큰 한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농업대국인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한 이상 일본도 한국이나 미국과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헤리티지 재단 "비준 실패 땐 한미동맹 큰 타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해온 미국의 보수성향 민간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앤서니 김 연구원은 2일 "FTA 비준을 통해 한미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것의 전략적 이득을 미 의회가 깨닫도록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연구원은 이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논평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각각 자국 의원들에 대해 선거구 이해관계를 넘어 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하고, "한미 FTA 비준은 미국의 대 동아시아 경제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만 비준 실패는 앞으로 수십년간 반향이 있을 타격을 핵심동맹에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포함해 낡은 보호주의 장벽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 맞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하고 비준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한나라당보다는 열린우리당 내부로부터 더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연구원은 한미 FTA가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정표라며, 협정이 발효할 경우 현재 연간 750억달러 규모인 교역이 200억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 발효는 미국의 기업측에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고, 한국의 점증하는 대중 무역관계의 균형을 되돌려 미국이 한국의 제1 교역국으로서 위상을 되찾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두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편 미국 무역통상대표부(USTR)는 미 의회에 제출한 2007년 연례통상보고서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시장"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양국에 경제와 정치적으로,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